

외환시장 거래시간

1. 뉴질랜드, 호주 시드니 : 오전 07:00 ~ 오후 16:00 (서머타임 적용 시기 1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2. 대한민국 : 오전 09:00 ~ 오후 15:30
3. 일본 도쿄 : 오전 09:00 ~ 오후 16:00
4. 홍콩 : 오전 10:00 ~ 오후 17:00
5. 유럽(프랑스, 스위스, 독일) : 오후 16:00 ~ 오전 01:00 (서머타임 적용 시기 1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6. 영국 런던 : 오후 17:00 ~ 오전 02:00 (서머타임 적용 시기 1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7. 미국 뉴욕 : 오후 22:00 ~ 오전 07:00 (서머타임 적용 시 1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외환시장 시간이 겹치는 밤 10 시 부터 새벽 02 시까지가 서머 타임 적용 시 21:00 ~ 01:00 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는 하루 거래량의 66% 이상이 이 시간대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 트레이딩 세션(시간)에 의해 세계의 거래 시장은 24 시간 거래됩니다.

트레이딩 세션

FX 마진 거래는 24 시간동안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active' 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흐름이 위로 움직이거나 떨어질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켓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드를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FX 마진 거래 시간

FX 마진 거래의 24 시간은 다음과 같은 트레이딩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드니 세션, 도쿄 세션, 런던 세션 그리고 뉴욕 세션입니다.

여름(4월-10월)

타임존	GMT
시드니 오픈	10:00 PM
시드니 클로즈	7:00 AM
도쿄 오픈	11:00 PM
도쿄 클로즈	8:00 AM
런던 오픈	7:00 AM
런던 클로즈	4:00 PM
뉴욕 오픈	12:00 PM
뉴욕 클로즈	9:00 PM

겨울(10월-4월)

타임존	GMT
시드니 오픈	9:00 PM
시드니 클로즈	6:00 AM
도쿄 오픈	11:00 PM
도쿄 클로즈	8:00 AM
런던 오픈	8:00 AM
런던 클로즈	5:00 PM
뉴욕 오픈	1:00 PM
뉴욕 클로즈	10:00 PM

여름과 겨울의 시간이 다른 것은 특정 국가에서는 썬머타임을 적용 또는 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도쿄세션과 런던세션이 겹치고 런던세션과 뉴욕세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중 가장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량을 지닌 **런던과 뉴욕 시장이 중첩되는 PM 10:00~AM 2:00 (한국 시간 기준)**에 총 외환거래의 66%
국가별로는 런던 외환시장이 31%, 뉴욕이 19% 입니다.

도쿄 개장시간

FX 마진 거래 (트레이딩 시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각 지역 별 세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세션은 GMT 12AM 에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 세션의 시작) 여기서 **아시아 세션**이라는 표현은 도쿄가 아시아 금융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일본은 FX 마진거래(포렉스) 시장에서 전세계 **3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일본의 엔화는 전세계 3 번째로 트레이드가 많이 되는 통화이며 이는 거래량의 **1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세션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은 **21%**가량 됩니다.

도쿄 세션의 특징

도쿄 세션이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거래가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에서 발생합니다.

도쿄 세션에서는 상사회사 및 중앙 은행들이 주요 시장 참여자입니다.

(일본 및 중국은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하루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유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낚시로 비유하자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폐쌍 거래가 강세를 보입니다.

(GBP/USD 보다는 AUD/USD 및 NZD/USD) 적은 유동성 덕분에 대다수의 화폐쌍이 범위 안에서 거래됩니다.

도쿄 세션을 통해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후 세션들의 전략을 모색합니다.

도쿄세션

도쿄 세션이 시작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및 일본에서 뉴스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이용해 거래하기 좋은 시간이며 일본엔화와 통화쌍을 이루는 통화를 거래하기 용이합니다. (일본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외환거래) 또한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 대국이며 호주와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AUS 와 JPY 통화의 움직임은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런던개장시간

런던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끝날 무렵 유럽 시장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금융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런던세션의 참여자가 됩니다.

런던

역사적으로 런던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덕분에 항상 '무역의 중심'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FX 마진거래(포렉스)에서도 런던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표현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명의 비즈니스 맨들이 매순간 거래를 하며 전세계 외환거래의 30% 정도가 이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유로피언 세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런던 세션은 두개의 다른 세션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션(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과 적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좁은 스프레드 차 이수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트렌드는 런던 세션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흐름은 뉴욕 세션까지 연결이 됩니다.

런던 세션이 닫히기 직전 트렌드의 흐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런던 세션

런던 세션은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간대이므로 모든 통화쌍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통화쌍은 GBP/USD, USD/JPY 및 USD/CHF 입니다.

뉴욕 개장시간

뉴욕

유로피언 세션의 트레이더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쯤 US 세션이 8:00 am 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 또는 유럽 시장과 함께 US 세션도 또 하나의 큰 금융시장입니다.

뉴욕 세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세션의 아침 시간은 굉장히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피언 세션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85%의 거래에 달러가 포함됩니다.

유럽 시장이 끝날 무렵 유동성과 변동성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US 세션의 오후까지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 밖에 없습니다.

어떤 통화쌍을 거래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U.S 장과 유럽의 장**이 함께 열려 있는 시간에는 엄청난 '유동성'과 '변동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통화쌍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마이너 조합 제외) 미국달러가 가장 많이 거래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자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외환거래에 적합한 시간

FX 마진 거래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TV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대가 프라임 시간대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FX 마진 거래에서는 도 개장시장이 겹치는 시간에 가장 큰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외환거래 시간대

두개의 세션이 겹치는 시간대는 유동성이 가장 큰 시간이므로 체결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두 개장시간이 겹치는 경우

도쿄-런던 세션

도쿄와 런던 세션이 겹칠 때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아시아 세션에서는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늦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이 시간대 유럽에서는 막 출근을 하여 잠잠한 유동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던-뉴욕 세션

런던과 뉴욕 세션이 겹치는 순간이 가장 바쁜 시간대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두개의 금융 센터(런던 & 뉴욕)가 거래에 참여해 이 시간대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새로운 경제 정보가 발생했을 때 말이죠.

런던 - 뉴욕

세계 최대 거래량을 지닌 런던과 뉴욕 시장이 중첩되는 **PM 10:00~AM 2:00 (한국 시간 기준)**시간대에 총 외환거래의 66%가 거래 됩니다.

외환거래에 적합한 일자

주요 통화들의 평균 피들을 요일 별로 정리해 본 결과 화,수,목요일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며 금요일에는 12:00 pm EST 까지만 바쁘며 장이 닫히는 5:00 pm 까지는 급격히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즉 위의 요일들에서 가장 큰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며 동시에 큰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입니다.

당신이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모든 세션에 참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FX 마진거래**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은 언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언제 트레이딩 하면 안 좋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시간 : 4 장 전 세계의 외환시장(FX 마진) 개장시간 폐장시간 두개의 세션들이 겹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중대한 경제뉴스들이 많이 나오며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유로피언 세션이 3 개의 세션 중 가장 활발한 세션입니다.

주중 화,수,목요일에 가장 큰 가격 변동성이 발생 합니다.

최악의 시간 : 금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U.S 시장의 막바지

요약 : 외환은 24 시간 개장된 시장지만 매시간 활발하게 외환이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양방향 수익구조이지만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